

THTR300 商業運轉에 突入

서독의 Hamm-Uentrop에 있는 300MW 토륨 HTR 原子力發電所가 6월 16日 BBC Brown Boveri AG와 그의 자회사인 HRB 및 Nukem GmbH로 이루어진 供給콘서시움에서 所有主이며 앞으로 運轉을 담당할 Hochtemperatur Kernkraftwerk GmbH (HKG)에게로 인도되었다.

Hamm의 300MW THTR은 BBC와 HRB가 開發·製造한 球形의 核燃料을 裝填, 運轉되고 있는데, 1985年 11月부터 試運轉을 하여 系統에 電氣를 공급하고 있었다. 설계사양의 發電所 運轉性能과 稼動性을 實證하기 위해 수행된 계약상의 시운전은 1987年 5月 25日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그동안 THTR 300은 10억kWh以上の 電力을 發電하였다.

서독에서 Brown Boveri와 HRB가 건설한 최초의 高温原子爐는 줄리히에 있는 15MW AVR 原子爐로서, 이 實驗用 發電所는 20년 이상 우수한 운전성능을 實證하고 있다.

THTR300을 完工한후 후속기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Brown Boveri는 상업단계로 퍼블베드型 高温原子爐를 택하고 있다. 서독이 市場에 도입할 高温原子爐는 發電과 프로세스蒸氣 추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550MW 증기사이클 發電所, 즉 HTR500이다. 發電과 530℃ 溫度의 증기를 공급하는 550MW HTR發電所는 HTR 고유의 특성과 입증된 THTR技術을 응용함으로써 대형 원자력발전소에 匹敵하는 코스트로 電氣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100MW에서 200MW 정도의 小型HTR은 工業地域에 가깝게 위치할 수 있고 電氣와 蒸氣를 함께 생산할 수 있어 同級의 재래식 발전소

와 경쟁이 가능하며 또한 10MW級의 小型난방 원자로도 장래에 주목을 받을 것이다.

蘇聯에너지省代表團 KWU社 訪問

蘇聯의 原子力省關係者一行이 지난 8月中旬 KWU社로 부터 提供받을수 있는 技術과 用役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KWU社를 訪問하였다. 原子省次官인 Lapshin을 團長으로 한 이 蘇聯代表團은 KWU社의 Erlangen에 있는 原子力엔지니어링 센터, Offenbach의 本社, Stuttgart近處의 Neckarwestheim-2號 PWR의 建設現場을 訪問하였다.

KWU社 代辯人은 이번 訪問이 兩國間에 앞으로 協力關係를 맺음에 있어 蘇聯當局者들로부터 金 우리의 技術을 充分히 알리기 위해 必要했다고 말하고 蘇聯側과 可能性있는 兩國間協力關係에 대한 協商을 繼續하기로 合意는 보았지만 公式的인 協定이나 契約은 맺어진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KWU社에서는 머지않아 蘇聯側으로부터 確實한 立場를 通告해 올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KWU社에 의하면 이번 兩者間의 會談과 訪問은 KWU社의 原子力플랜트安全에 關한 技術, 運轉員訓練用 시뮬레이터의 利用, 除染 및 廢棄物處理方法, 原子爐機器에 대한 試驗方法 등이 重點的으로 다루어졌다고 한다.

KWU社, Paks原電의 S/G檢査裝備 受注

KWU社는 헝가리 Paks原電의 VVER-440 4基에 使用될 渦電流探傷檢査裝備와 플러그挿入 및 熔接用 裝備를 包含, 蒸氣發生器 튜브檢査裝備 納品契約을 受注하였다.

이 KWU裝備는 超音波探傷檢査와 補修를 包含 여러가지 用途로 使用될 수 있는 모듈型檢査裝備로써 1個의 遠隔調整 操作機(VVER 蒸氣

發生器의 円筒形 튜브 콜렉터에서 使用할 수 있도록 特別히 設計됨)와 함께 使用하게 되는 것이다. 이 操作機는 VVER-440의 仕様에 맞추어 KWU社에서 特別히 開發한 것이며 Paks 플랜트以前에 이미 KWU社는 핀란드(Lovisa 플랜트)와 西獨(Bruno Leuschner 플랜트)으로부터 그들의 蘇聯型 PWR에 대한 檢査技術提供을 依頼받은바 있다. KWU社에서는 이번의 同社의 蒸氣發生器 튜브 플러그方法은 蘇聯의 플러그에 관한 規定에 맞추어 開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프랑스

이라크研究爐 復舊를 위한 交渉 否認

시라크首相은 그가 이라크大統領에게 Tuwaitha 原子力研究所의 OSIRAK型 研究爐를 復舊해주시기로 約束하였다는 한 프랑스週刊紙의 報道內容을 否認하였다.

Tammuz-2라고도 불리우는 이 40MW(熱出力)級의 OSIRAK 水泳풀울型 研究爐는 프랑스의 Saclay 原子力研究所의 Osiris 研究爐와 同型으로 1981年 6月 7日 이스라엘의 空襲으로 크게 破損된 것이다.

이 記事는 프랑스의 Le Canard Enchaîné紙가 시라크首相으로 부터 이라크大統領 앞으로 보내는 6月 24日字의 極秘의 電文을 引用報道한 것이다. 이 隱語를 使用한 電文에서 Tammuz 施設에 대해서는 直接的인 言及이 없었지만 이 週刊紙의 Angeli主筆은 시라크首相이 이 電文에서 「貴下가 잘 알고 있는 이 協商」이라는 表現은 破損된 이 研究爐의 復舊問題를 말하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그 理由는 프랑스 對外貿易省의 Noir長官이 6月中 부다페스트를 訪問하여 후세인大統領과 이 問題를 協議하기로 豫定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Angeli主筆의 이러한 解釋에도 不拘하고 이 電文에는 研究爐나 其他 프로젝트에 대해 直接的으로 言及한 것이 전혀 없으며, 프랑스政府 代辯人은 Noir長官의 이라크訪問目的은 프랑스에 대한 이라크의 債務償還計劃을 再調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프랑스政府代辯人인 Juppe씨는 프랑스와 이라크의 外交關係가 危機를 맞고 있는 現時點에서 이러한 記事를 낸데 대해 Enchaîné紙를 非難하였다. 미테랑大統領官邸인 엘리제宮에서는 이와 같은 電文의 寫本을 받은바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原子力委員會(CEA)는 Tammuz 爐의 復舊交渉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바 없으며 더우기 今年에는 CEA代表團이 이라크를 訪問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라크原子力委員會와 프랑스의 借款團인 Cerbag間的 以前の 契約은 1983年 3월에 解約되었으며 그 當時 이라크는 約 1億 프랑(2千2百萬弗)의 Cerbag借款團의 契約履行保證金を 返還하는데 同意했었다. 그 이